



전도서

1:1 전도자 소개

1:2-11 헛되고 헛되다/전도자 시

1:12-2:26 회상

① 지혜의 고민 (1:12-18)

② 세상의 성공과 의미(2:1-11)

③ 지혜와 어리석음(2:12-17)

④ 인간 수고의 의미(2:18-26)

3:1-15 전도자의 시

3:16-4:16 회상

⑤ 의인과 악인의 보상(3:16-22)

⑥ 사회적 억압(4:1-3)

⑦ 성공과 시기(4:4-6)

⑧ 어떤 부자, 대안적 삶(4:7-12)

⑨ 신분상승(4:13-16)

5:1-9 전도자의 케리그마

5:10-6:9 회상

⑩ 어떤 부자, 대안적 삶(5:10-20)

⑪ 욕망의 한계(6:1-9)

6:10-7:14 **이익의 문제**

7:15-10:20 **회상**

⑫ 하나님 경외(7:15-22)

⑬ 지혜의 신비(7:23-8:8)

⑭ 의인과 악인(8:9-11)

⑮ 인간의 한계, 산 자의 기쁨

⑯ 신비와 섭리(9:11-12)

⑰ 가난한 지혜인의 고뇌

⑱ 지혜의 유약성(9:18하-10:20)

11:1-12:7 전도자의 케리그마

12:8 헛되고 헛되다

12:9-14 편집후기

참고도서

두란노 How,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WBC 주석, 현대성서주석

사람들은 헬라정신과 문물에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선호할 스펙들이라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이미 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메시지 성경, 전도서 1:14).

가능한 많은 지혜, 지식, 문물을 습득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고 말합니다(메시지 성경, 1:16).”

전도서 기자는 열정적으로 구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1:16),

쾌락을 추구하는 일(2:1-3), 살림을 불려나가고,

복지와 근린시설을 늘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는(2:4-8)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회상합니다(2:11).

칭송받던 인재들마저 결국 세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2:15-17).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실망스럽고,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2:20-23).

이쯤 되면 우리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혹 회의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닐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지혜, 스펙,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피력하려는 표현의 일환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낙관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것들이 선하고 완벽한가?

인간 개개인에 깃든 존재와 가치를 무시한 채

모두에게 똑같은 스펙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가? 그런 세상이 옳은가?

사람들은 <세상의 규격>을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스펙을 획득하려고 애씁니다.

입시, 입사의 성공 도식을 따라하려 애씁니다.

성공에 대한 세상 기준을 충족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다움’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1:1).

<글로벌 스탠더드>의 원조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1:21).
물고기는 물고기로, 여우는 여우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와 여우 사이에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2:19).
각 생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물고기에게 여우의 삶을, 여우에게 물고기의 삶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고유의 가치와 존재 이유, 나름의 <분복分福>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지혜, 스펙, 수고에 대해 헛되다고 한 것은,
모두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삶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한 기준은
세상이 정한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창조 스탠더드> 즉, 창조 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누릴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의 기쁨(3:24),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과 희락(3:26),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일(9:9).
하나님께서서는 각자의 가치대로 수고하며,
먹고 마시고 낙을 보게끔 창조 하셨습니다(5:18).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과 전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기 모양대로, 은사대로, 수고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예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묻지 않고,
성공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쟁취하는 배움, 지혜, 지식, 스펙, 직업들은
결국 근심하고 수고하는 슬픔과 밤에도 쉬지 못하는 고통,
아무 소득 없이 마음에 애쓰는 수고만 있을 뿐입니다(2:22-23).

<창조 스탠더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5:2)
하나님의 때를 묻고(3:1-8),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12절)
먹고 마시고 <각기>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13).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정하신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다움'을 묻고,
나의 <이름>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내가 습득할 참 지혜와 참 스펙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다움 없이 취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